



총의치의 교좌 인상법



최 병갑*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치과학교실

총의치의 인상 채득법은 개구 인상법(open mouth technic)과 폐구 인상법(closed mouth technic)으로 나누어진다. 개구 인상법에 대하여는 여러 임상 기법이 소개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반면, 폐구 인상법을 소개하는 문헌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임상에 사용되는 경우도 점막 조정제(tissue conditioner)를 이용한 치료의치(treatment denture)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원 임상에서의 입장에서 보철 전문의에게 치료를 의뢰하는 총의치 증례에서 환자의 주소증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의치 사용시의 통증과 유지의 부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대한 처치의 내용을 보면, 교합의 부조화와 부적당한 고합 고경등 교합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구강 점막에 대한 압흔의 조정으로 나타났다. 총의치를 구성하는 교합면과 인상면 그리고 연마면의 3면 중 교합면은 완전히 새로 재 구성해야하는 하며, 해부학적인 참고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떨어져 강한 교합력이 작용하므로 문제의 원인으로 가장 빈번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구 인상법이 점막면 즉, 인상면에 초점을 맞춘 인상법이라 하면, 폐구 인상법은 교합면을 중심으로 점막면의 인상을 채득하는 인상법이라 할 수 있다. 교좌 인상법(咬座印象法, Bite-Seating Impression))은 1958년 동경 치대의 야사끼 마사카다(矢崎 正方) 교수에 의하여 제창되어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총의치의 제작과정에서 누적되는 오차를 상하악의 교합 상태에서 인상을 채득함으로써 보상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교좌 인상법은

- (1)인상 채득의 단계에서 교합면을 기준으로 오차를 수정함으로 완성 후 오차가 적은 총의치의 제작이 가능하고(occlusion-oriented)
- (2)개구 인상법에 비해 보다 생리적이며(physiologic closed mouth),
- (3)구강 점막의 압 부담역(stress bearing area)에 힘을 균등히 부과하여 구강 점막의 압 부담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으며(pressure impression)
- (4)일반 임상에서의 입장에서 시술이 간편한데 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linically easy)

총의치 보철 임상에 별로 소개되지 않은 폐구 인상법인 교좌 인상법을 소개한다.